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왕소희** · 배희분***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90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심리적 통제와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첫째, 주요 변인들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그 경로에 매개하는 주요한 변인이며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를 높이며 그로 인해 낮아진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을 높인다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 자기효능감

* 본 연구는 왕소희(2021)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왕소희(주저자)는 상명대학교 상담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주 관심 분야는 가족상담, 청소년 상담 등이다. E-mail: spah857@gmail.com

*** 배희분(교신저자)은 상명대학교 교수이며, 주 관심분야는 아동·청소년 상담, 부모교육,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이다. E-mail: heeboon@smu.ac.kr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접어드는 단계로 그동안의 발달 과정 중에서도 가장 많은 평가를 받고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20대 청년들은 주어진 목표에 몰두하여 학업에 열중했던 중, 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발표 수업이나 토론 수업 등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상황을 주도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 빈번하게 놓이게 됨으로써 사회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대학생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다양한 경험과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겪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느끼게 되며 자기능력에 대한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활동인구조사(KOSIS)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20년 8월 7.7%에서 2021년 5월 9.3%로, 청년실업자는 같은 기간 31.6만 명에서 40.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취업과 직업 활동의 지속이 어려워지고 높아지는 경쟁력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정체성을 다양하게 나타내야 하는 대학생들은 잦은 빈도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게 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2016)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초기 성인기의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을 조사한 바 2001년 8.8%와 4.0%에서 2016년 9.5%와 5.1%로 각각 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현대 사회의 20대는 점점 심해지는 취업난과 고학력화로 인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의 채용문이 좁아지고 취업 불경기가 심화됨에 따라 부모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며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시간이 길어진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부모에게 사회적인 개입을 받는 빈도와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대학생이 된 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제시되고 있고 어떤 양육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자녀가 내면화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공지혜, 2021).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사회화를 하는 과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정서적, 성격적 측면에서의 성장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심리적 통

제(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는 부모가 자녀의 사고와 감정, 부모에 대한 애착 등에 영향을 주고 조정하려는 훈육행동을 말한다. 심리적 통제 경향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인지적인 요인과 정서적인 요인을 부정적인 사고로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이송이, 2006), 이는 자녀 스스로 내적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를 포함하여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에 취약하게 만든다. 대학생활에서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하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이 발생한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능적인 사고와 내적요인을 건강하게 발달시키지 못한다면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걱정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유능감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최정아 · 이해은, 2008). 심리적 통제는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죄책감을 유도하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도록 만들고 자녀의 감정표현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능동적인 행동을 저해하는데, 이는 사회적인 활동에서의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송아, 2008; 최은경 · 임정하, 2018).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철회 및 죄책감 유발 등 심리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조종하려 할 때 자녀는 부정적인 기제를 내면화하게 된다. 이러한 기제는 자녀가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만들고 상처를 받기 쉽게 되어 실패나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특징을 초래할 수 있다(강선희 · 정남운, 2002).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기상이나 대상에 대한 표상이 달라질 수 있고 동시에 사회에 대한 기대를 내면화하게 된다(김창대, 1997). 자녀가 내면화한 자기상은 자기애를 형성할 때에 영향을 주는데 이 때 만들어지는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라는 성격특성 요인은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기제가 스스로에게 비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실패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기 쉽게 만들고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쓸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강선희 ·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의 과민한 행동양상 즉,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한 모습은 반대로 자신은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비합리적 신념과 자기애 인식에 기반하므로 웅대한 자기상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자기 내면의 심리적 구조는 자기도취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한수정 · 권석만, 2010).

내현적 자기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만들어내어 사회

불안의 성격적 기반을 탐색하는 흐름에서 주목받고 있다(최인선·최한나, 2013). 내현적 자기애는 어린 시절 부모의 공감적 수용의 실패와 과잉기대로 인해 생기는 성격적 특성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내면에 생긴 웅대한 자기상 때문에 생기는 과민한 양상을 보인다(최인선·최한나, 2013). 이러한 부정적인 특징으로 인해 내현적 자기애는 선행연구에서 부적 영향을 주는 매개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김빈나 외, 2018).

조용래(1998)는 사회불안이 발생하는 데의 인지가 주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사고가 사회공포증으로 발전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서술했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인식하는 자기(Self)는 스스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자기 평가에 반복적인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 중 행위와 실현성취와 관련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도전해 나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개인의 내적요인이다.

자기효능감은 수행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개개인의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과 행동해야 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로, 낮은 자기효능감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스트레스 상황을 기능적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어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을 증가시킨다(Bandura, 1977).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작용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박효정·박주희, 2015).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다양한 역기능적 기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최은경·임정하, 2018). 이는 개인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위축된 자기효능감이 발달단계의 다음 과업인 대학생 시기에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부적응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고(주혜원·배희분, 2020; 이수련·하정희, 2021) 그 중에서도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매개하는 요인 탐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은영 외,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함께 보거나 모의 심리적 통제만 따로 다루어져 왔을 뿐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경로를 따로 살펴본 경우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양육에 관련한 변인에 대해 살펴볼 경우 어머니의 양육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현재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가족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에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따로 분석하여 각각의 경로가 유의함이 밝혀진다면 개인 상담에서 아버지의 관계에도 집중하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분리하여 분석하려 한다. 또한 앞서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하여 아버지의 경로와 어머니의 경로를 각각 확인해 볼 것이다. 또한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의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 상담 방향과 개입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은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토대로 세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하는가?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불안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는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며, 자신이 당황스럽고 창피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을 두려워함을 뜻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역기능적인 신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사회불안장애는 초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시형 외, 1994). 사회불안장애는 불안유발 상황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수행불안과, 타인과의 의사소통 즉 대인관계 시 갖게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정운 · 최정훈, 1997), 수행불안은 사회적 과제 수행부터 일상적인 수행까지 다양한 활동에서 불안과 위축을 겪는 것이고,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이란 대인관계 속에서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예민해져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최명희(2019)는 사회불안과 사회불안장애의 관계를 양적인 수치 차이로 가정하였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언제나 사회불안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과도해지면 사회불안장애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삶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족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사회 환경을 경험하고, 속하며, 활동하게 된다. 의도하지 않아도 대인관계나 학업 수행 등에서 적절한 대응능력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며 그 과정속의 경험이 축적되어 다양한 외적능력으로 발현된다.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갖은 부정적인 경험이 내적으로 축적된다면 사회적 상황을 기피하게 되고 일상적으로 사소한 상황에서도 사회불안을 겪게 되어 사회적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심리적 통제

과열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감 속에서 청년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서의 전환이 늦어지는데 Arnett(2004)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고 정의했다. 성인진입기에 포함되는 연령은 18~25세로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20

대 초반의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등의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Arnett & Schwab, 2012).

성인진입기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의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와 함께하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부모들은 대학생 자녀를 주체적인 성인으로 대하기보다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라고 인식하여 그들의 사고나 감정을 판단하거나 침범하며 사회적 적응(김은영, 1993) 또는 대인관계(주혜원·배희분, 2020) 등에 영향을 준다.

Shaefer(1959)가 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란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애정 철회, 죄의식 유발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하여 자녀의 사고와 자기표현, 감정, 부모에 대한 애착 등에 지나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행동을 말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내면화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김소연,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의사소통을 포함한 주요 변인들이 자녀의 사회적인 적응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한유리·박성옥, 2020). 이는 성인이 어린 시절 최초로 경험하는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족 내에서, 학습되는 규칙들이 성인으로 진입하는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Erickson(1950)이 말한 사회적인 정체성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들이 앞으로의 발달단계에서 행해질 다양한 과업에 유능감을 느끼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영향과 간섭이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정재익·양난미, 2019; 이수련·하정희, 2021). 이는 곽윤영·정문자(2010)의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체감 형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과 성장의 지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최근의 가족환경 경향에 따르면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정은·서지원, 2021). 그동안 양육 관련 연구가 부모를 함께 보거나 어머니에게 집중하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의미한 정서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자녀는 사회생활을 할 때 자신의 내적인 에너지나 대응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발달을 함께한 부모가 주는 영향은 심리적인 요인

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 행동 수행에 유의미한 변화를 준다.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불안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외적 능력이 실현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경험 자체나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권석만, 2013). 이는 자신의 건강한 자기상(Self-Image)을 형성하여야 건강한 내적 요인으로 사회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내현적 자기에

자기애는 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할 수 있다(Akhtar & Thomson, 1982; Kohut, 1971, 1977;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애적인 특성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경우로 자신의 성취나 성과를 자랑하고 과시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고자 한다. 반대로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시선과 태도반응에 과민하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더 기울이며 그들에게서 경멸이나 비판의 증거가 있는지 살핀다. 또한 그런 증거에서 쉽게 상처받으며, 수치심 또는 굴욕감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Akhtar & Thomson, 1982). 반대로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거절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들을 평가절하 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양상을 보이며 타인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때에 생기는 감정을 기능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내현적 자기애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는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난척하는 자기애자의 모습과 차이가 있어 보여 타인이 보기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평가와 탐색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행동양상이 결국 '나는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고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밉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권석만, 2013). 내현적 자기애는 유아동기에 형성되어 고착되며 성격특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Kohut(1984)은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부모가 공감적 반응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 공감적 반응의 결핍이 있는 자녀에게 결핍을 가진 자기가 형성되어도 그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부모가 다시 공감적 반응을 충분히 해주는 변화를 주거나 교사나 친구 또는 배우자 같은 새로운 자기 대상을 통해 공감적 반응의 다른 경험을 한다면 삶에서 다시 건강한 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또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의 사회적 관

계에 뛰어들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며 낯선 곳, 새로운 대인관계 환경에서 각자의 역량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한다. 최근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이러한 경험을 하는 대학생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제시되고 있다(이은영 외,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욕구를 억누르고 무시한 채 독립적인 사고나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아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고 하였고(최정아·이혜은, 2008),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지니게 되고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추구하게 되면서 사회불안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한다(정현희·정미정, 2002).

4. 자기효능감

Luyckx(2007)는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거나 결정하기를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으로 개인의 내적 자원을 키워 내기도 하고 결핍된 상태로 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사회활동에서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높은 자신감과 효능감을 가질 때에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특히 대학생의 사회적인 활동은 개인의 수행능력에 따라 그에 대한 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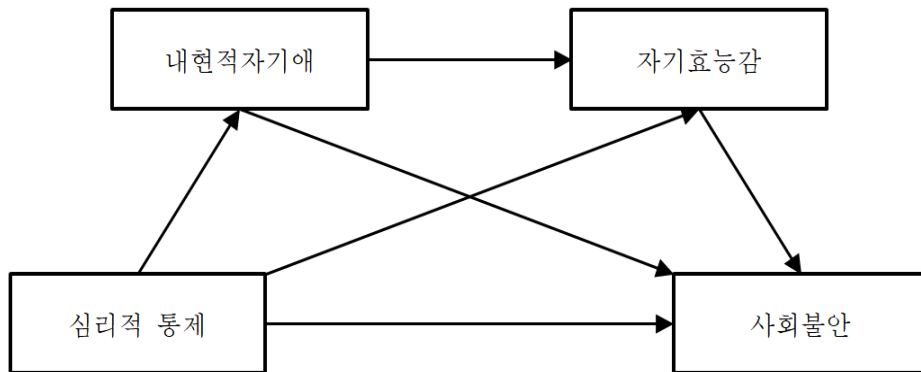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자신의 수행을 방해할 만한 정서를 덜 느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성취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개인이 사회불안을 느낄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데, 반대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낮아 수행을 방해받고 성취결과에서 좌절한다면 사회불안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공경험이 목표행동뿐 아니라 다른 행동에도 일반화된다는 증거가 있고(Bandura, 1977; 차정은, 1996: 2 재인용),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 실패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해 낸다.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환경에서 다양한 성격특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의 경험은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상황에 부정적으로 과민한 양상으로 축적될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발현하는 양상으로 축적될 수 있다. 성인진입기에 들어서 사회적 행동에 속하는 대인관계와 다양한 수행을 요

구하는 활동을 경험하는 대학생 시기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요인을 발휘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성장을 겪거나 실패를 겪고 좌절하거나 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자녀의 내적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이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회불안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자기와 관련된, 각자 특성이 다른 두 변인은 개인의 내적요인에 큰 영향을 주고 또한 그로 인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내적요인으로 가지고 있고 삶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두 변인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 전국에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IRB 승인번호는 IRB-SMU-S-2021-1-004이다. 참가자들은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편의표집하거나, 온라인 서베이 업체와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총 39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설문에는 설문의 목적과 함께 비밀 보장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설문 후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약 3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설문지는 성별과 학년을 포함하는 사회 인구학적 질문을 제외하고 총 115문항이며, 설문 작성 소요시간은 약 20분 내외였으며 최종 390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177명(45.4%), 여학생 213명(54.6%)으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고, 학년은 1학년 89명(22.8%), 2학년 111명(28.5%), 3학년 92명(23.6%), 4학년 98명(25.1%)으로 2학년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대상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77	45.4
	여	213	54.6
학년	대학교 1학년	89	22.8
	대학교 2학년	111	28.5
	대학교 3학년	92	23.6
	대학교 4학년	98	25.1
전공	인문	75	19.2
	사회	95	24.4
	자연	37	9.5
	공학	76	19.5

변인	구분	대상	
		빈도(명)	백분율(%)
전공	예체능	21	5.4
	사범	16	4.1
	의, 간호	70	17.9
소속 학교 지역	서울	145	37.2
	경기	65	16.7
	기타	180	46.2
부모님과 동거여부	부모와 동거 한다	324	83.1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	66	16.9
부모님의 경제수준	상	45	11.5
	중	287	73.6
	하	58	14.9
합계		N = 390	100

3. 측정도구

1) 심리적 통제

Barber(1996)가 개발하고 최명진(2010)이 변안한 심리적 통제척도(PCS-YSR :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를 사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문항은 자녀가 직접 부모에게 받는 심리적 영역에서의 통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언어적 표현의 제약, 감정무효화, 개인적 공격, 죄책감 유도, 애정철회, 기괴한 정서적 행동 등 6개로 구분되며,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를 구분한 32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Barber(1996)는 3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명진(2010)이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심리적 통제의 더욱 넓은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해 5점 Likert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명진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의 심리적 통제 .91, 모의 심리적 통제 .90이었다.

2) 사회불안

Mattick과 Clarke(1988)이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SIAS(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와 사회공포증 척도 SPS(Social Phobia Scale)를 Carleton(2009) 등이 단축형으로 제작한 것을 이후 김소정(2013) 등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의 하위요인은 사회적 상호작용, 명시적인 평가, 주의를 끄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3개로 구분되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김소정(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3) 내현적 자기애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hktar와 T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해 개발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사용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등 수행에 대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사용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영(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5.0과 SPSS Macro(v.3.5)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SPSS Macro는 Hayes(2013)의 Macro모형검증 PROCESS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순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 산출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각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v3.5)를 이용하여 Hayes(2013)가 제시한 4변 모형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v3.5)를 이용하여 Hayes(2013)가 제시한 4변 모형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v3.5)를 이용하여 Hayes(2013)가 제시한 6변 모형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의 주요변인인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경향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측정변인의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 평균은 각각 2.19, 2.18 이고 사회불안의 평균은 2.68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의 평균은 2.92이며,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13이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의 심리적 통제	2.19	.75	.84	.53
모의 심리적 통제	2.28	.73	.64	-.08
사회불안	2.68	.75	.39	-.10
내현적 자기애	2.92	.53	-.01	.20
자기효능감	3.13	.53	-.08	.36

2)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 및 자기효능감과 통제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값을 계산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인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	자기 효능감
부의 심리적 통제	1				
모의 심리적 통제	.463**	1			
사회불안	.275**	.269**	1		
내현적 자기애	.341**	.373**	.687**	1	
자기효능감	-.163**	-.169**	-.508**	-.590**	1

** $p < 0.01$

3) 주요 변인들의 성별 차이 검증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모든 주요 변인에 대해서 남녀 대학생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자기효능감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다른 통제변수인 학년과 부모님과 동거여부, 부모의 경제수준을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 변인들의 성별 차이

	남자	여자	t
	N = 177	N = 213	
	평균	평균	
부의 심리적 통제	33.89	35.95	-1.697
모의 심리적 통제	35.67	37.05	-1.175
사회불안	34.48	39.99	-5.347***
내현적 자기애	126.24	135.89	-4.053***
자기효능감	77.41	73.00	3.432***

*** $p < .001$

2.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4변모형을 사용하였다.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변인에 성별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1) 대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부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경로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F=33.135$, $p<.001$) 이에 대한 설명력(R^2)은 14.6%로 나타났다. 즉 부의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26$, $p<.001$), 이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를 보면 부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를 동시에 투입하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F=123.654$, $p<.001$), 설명력(R^2)은 49.0%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647$, $p<.001$), 부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부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F	R^2
내현적 자기애	부의 심리적 통제	.650	.094	.326	6.918***	33.135***	.146
사회불안	부의 심리적 통제	.038	.034	.044	1.132	123.654***	.490
	내현적 자기애	.284	.017	.647	16.440***		

*** $p<.001$

다음은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Hayes, 2013). 〈표 6〉을 보면 부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은 95% 신뢰구간이 .129 ~ .24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18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완전 매개하는 것을 뜻한다.

〈표 6〉 간접효과 검증

경로	effect	95% 신뢰구간	
부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185	.129	.243

2)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경로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39.950$, $p<.001$) 이에 대한 설명력(R^2)은 17.1%로 나타났다. 즉 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62$, $p<.001$), 이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를 동시에 투입하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았고 <표 7>에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F=122.947$, $p<.001$), 설명력(R^2)은 48.9%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655$, $p<.001$),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내현적 자기애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아지면 내현적 자기애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 사회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F	R^2
내현적 자기애	모의 심리적 통제	.745	.095	.362	7.806***	39.950***	.171
사회불안	모의 심리적 통제	.016	.035	.017	.443	122.947***	.489
	내현적 자기애	.286	.018	.655	16.382***		

*** $p<.001$

다음은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Hayes, 2013). <표 8>를 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은 95% 신뢰구간이 .150 ~ .28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214)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완전 매개하는 것을 뜻한다.

〈표 8〉 간접효과 검증

경로	effect	95% 신뢰구간	
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214	.150	.282

3.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0.558$, $p<.001$) 이에 대한 설명력(R^2)은 7.1%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50$, $p<.001$), 이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F=61.600$, $p<.001$), 설명력(R^2)은 32.7%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87$, $p<.001$).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48$, $p<.001$).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F	R^2
자기효능감	부모의 심리적 통제	-.160	.053	-.150	-3.015***	10.558***	.071
사회불안	부모의 심리적 통제	.164	.037	.187	4.412***	61.600***	.327
	자기효능감	-.368	.037	-.448	-10.434***		

*** $p<.001$

다음은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Hayes, 2013). 〈표 10〉를 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

향의 검증은 95% 신뢰구간이 .024~.096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059)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간접효과 검증

경로	effect	95% 신뢰구간	
부의 심리적 통제→ 자기효능감→ 사회불안	.059	.024	.096

2)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1.194$, $p<.001$) 이에 대한 설명력(R^2)은 5.5%로 나타났다. 즉 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59$, $p<.001$), 이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F=61.176$, $p<.001$), 설명력(R^2)은 32.2%로 나타났다. 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83$, $p<.001$).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47$, $p<.001$). 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F	R^2
자기효능감	모의 심리적 통제	-.175	.055	-.159	-3.213***	11.194***	.055
사회불안	모의 심리적 통제	.166	.038	.183	4.308***	61.176***	.322
	자기효능감	-.367	.035	-.447	-10.378***		

*** $p<.001$

다음은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Hayes, 2013). <표 12>을 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은 95% 신뢰구간이 .026~.106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064)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간접효과 검증

경로	effect	95% 신뢰구간	
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효능감→ 사회불안	.064	.026	.106

4.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326, p<.001$)을 주었고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로의 유의성은($F=33.135, p<.00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R^2)은 14.6%로 나타났다. 다음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의 경로는($F=70.220,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보였지만($\beta=-.594,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beta=.044$) 나타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로의 설명력(R^2)은 35.3%이다. 마지막 사회불안으로 가는 세 변수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F=55.021, p<.001$), 설명력(R^2)은 50.5%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는($\beta=-.150, p<.001$) 부정적 영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고,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도($\beta=.559, p<.001$)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세 가지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beta=.050$)으로 나타나 순차적 매개경로를 검증하였다.

〈표 13〉 부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F	R^2
내현적 자기애	부의 심리적 통제	.650	.094	.326	6.918***	33.135***	.146
자기효능감	부의 심리적 통제	.047	.047	.044	1.009	70.220***	.353
	내현적 자기애	-.318	.024	-.594	-13.409***		
사회불안	부의 심리적 통제	.044	.033	.050	1.318	55.021***	.505
	내현적 자기애	.245	.021	.559	11.859***		
	자기효능감	-.123	.037	-.150	-3.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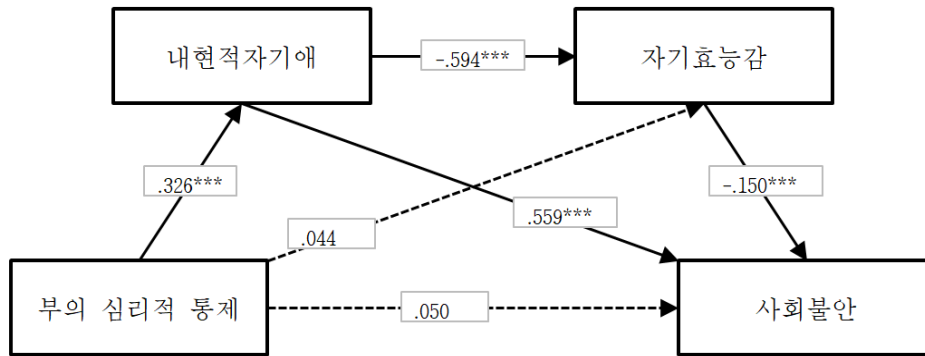
*** $p < .001$

다음은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Hayes, 2013). 〈표 14〉을 보면 부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은 95% 신뢰구간이 .010 ~ .04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026)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간접효과 검증

경로	effect	95% 신뢰구간	
총매개효과	.179	.123	.236
부의 심리적 통제 → 내현적 자기애 → 사회불안	.159	.108	.213
부의 심리적 통제 → 자기효능감 → 사회불안	-.006	-.019	.005
부의 심리적 통제 → 내현적 자기애 → 자기효능감 → 사회불안	.026	.010	.044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의 심리적 통제는 직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기효능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로모형의 결과는 [그림 2]과 같다.



[그림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표 19>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362$, $p<.001$)을 주었고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로의 유의성은($F=39.950$, $p<.00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R^2)은 17.1%로 나타났다. 다음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의 경로는($F=70.602$,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보였지만($\beta=-.595$,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beta=.059$) 나타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로의 설명력(R^2)은 35.4%이다. 마지막 사회불안으로 가는 세 변수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F=97.429$, $p<.001$), 설명력(R^2)은 50.3%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는($\beta=-.149$, $p<.001$) 부적 영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고,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도($\beta=.565$, $p<.001$)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세 가지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beta=.026$)으로 나타나 순차적 매개경로를 검증하였다.

〈표 1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F	R^2
내현적 자기애	모의 심리적 통제	.745	.095	.362	7.806***	39.950***	.171
자기효능감	모의 심리적 통제	.064	.049	.059	1.327	70.602***	.354
	내현적 자기애	-.322	.024	-.595	-13.383***		
사회불안	모의 심리적 통제	.024	.035	.026	.673	97.429***	.503
	내현적 자기애	.248	.021	.565	11.835***		
	자기효능감	-.123	.037	-.149	-3.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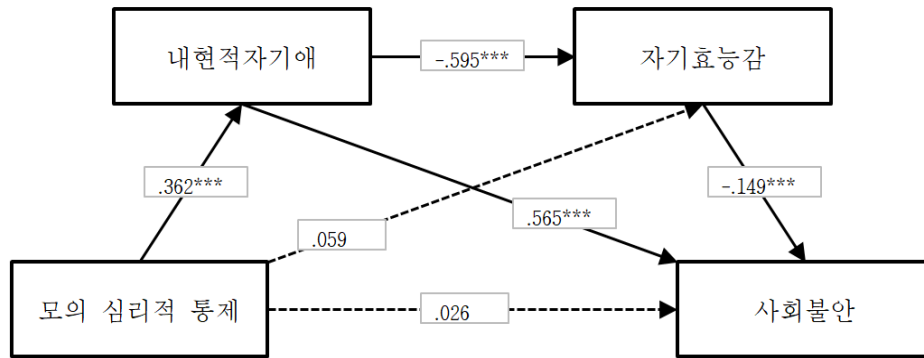
*** $p < .001$

다음은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Hayes, 2013). 〈표 16〉을 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은 95% 신뢰구간이 .011 ~ .050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029)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6〉 간접효과 검증

경로	effect	95% 신뢰구간	
총매개효과	.206	.145	.270
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185	.128	.246
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효능감→ 사회불안	-.008	-.023	.005
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효능감→ 사회불안	.029	.011	.050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의 심리적 통제는 직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기효능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로모형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 사회불안의 관계와 경로를 살펴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 경로를 개별적으로 보아 기존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에만 치우쳐 있던 연구들을 보완하여 연구할 수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영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상담에서 대학생이 사회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사회불안을 낮추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치료접근방법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의 경로 또한 유의미함을 밝혀 관계적인 측면의 접근이 중요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계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전국 390명의 남녀 대학생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는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세 변인과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자녀가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면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녀가 사회불안을 느끼는 원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형성된 자녀의 내적요인이 사회불안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개별경로와 함께 아버지의 개별경로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못지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전반적인 매개의 효과가 아버지의 양육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이 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며(조하나, 2015),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에게 여전히 정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김대희, 2020) 맥을 함께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합쳐서 경로를 확인하거나(이경희·홍혜영, 2019),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이루어져(마은애, 2014),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미치는 경로를 함께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각각 측정하여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자녀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과(박혜빈, 2020) 맥을 함께한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유의미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다수의 연구들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심리적인 자원들을 어머니에게서 얻는다고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양육태도 즉 심리적 통제와 더불어 어머니에게 받는 영향과 실상 다르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아버지의 양육태도변화가 상담 장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통제하여 자율성을 떨어뜨리면서 사회적 대처능력이 부족해진 자녀가 역기능적으로 내재적인 요인을 키워 높은 사회불안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내현적 자기애가 완전매개 하여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심리적 통제로 부정적인 신념과 역기능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내현적 자기가 높아진 자녀가 사회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여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을 높이고 그로 가는 경로에 자기효능감이 매개하여 낮은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심리적통제가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 자기효능감이 매개하고 그 발생과정에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허재홍, 2008),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신희덕, 2007)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부모가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제약하고 죄책감을 유도하며 잦은 애정철회 등과 같은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양육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자율성이 낮아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을 향상시키지 못하여 사회적 환경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형성되는 성격특성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자녀의 내적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정민, 2019) 내현적 자기애에서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순차적 매개경로를 설정하였고, 유의미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를 거쳐 자기효능감에, 그리고 이것이 다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자녀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 때 내현적 자기애를 높여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쉽게 수치심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며 그로 인해 성취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능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낮은 자기효능감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어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거나 다른 이들의 시선 속에서 무언가를 수행해야 할 때 더욱 과민해 사회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을 내면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자녀가 내면화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라는 특성이 이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인진입기에 내면화한 특성을 발휘하며,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울 때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 사회불안을 겪고 있을 때에 상담 장면에서 부모교육이 어떠한 것을 더욱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상세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서 내면화된 부정적인 요인들, 억압된 자기표현, 억제된 언어적 표현, 부모의 과도한 기대로 인한 우울 등이 성인이 되어서도 발현되고 꾸준히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

므로 상담 장면에서는 어떤 한 이론을 기반으로 내담자에게 접근하기보다, 부모로부터 결핍된 공감과 수용을 충분히 다루어 자녀들이 건강한 자기표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관계에 개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수정된 건강한 자기상으로 유능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인 요인을 함께 다루어 상담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순차적인 개입 경로를 세부적으로 설정한다면 대학생의 사회불안 상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와 모를 각각 모집, 측정하여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이라는 변인의 관계를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라는 개인의 심리내적요인을 투입하여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자녀에게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함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도 각각의 경로로 자녀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두 변인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하여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심리내적요인인 우울과 불안, 분노, 거절민감성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남기석·황성훈, 2020)을 지지하고 꾸준히 다뤄져야 하는 주요한 치료적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여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며(박정하·민일식, 2013) 부모로부터 형성된 자녀의 효능감과 유능감이 삶의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변인들의 개별적인 관계는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혀져 있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을 함께 또는 순차적인 경로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심리적 통제가 내적요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고착시켜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통계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함으로써 상담개입의 방향성을 고찰 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모집을 하였으나 지역별로 비율을 맞추어 조사되지 않았고 몇 개의 지역 일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성인진입기에 해당되는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더 폭넓은 지역을 고려하고 비율을 측정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므로 대상자들이 방어적이거나 보이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같은 경우 자신이 심리적 통제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모와 자녀 양측 입장에서 모두 측정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장애를 보이는 일반집단이나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모든 집단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과 사회불안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매개하여 사회불안을 다루는 상담에서 다뤄질 중요한 요인으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두 매개변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사회불안을 가진 대학생을 상담할 때에 상담개입 지점과 방향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선희 ·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공지혜 · 하정희. 20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경험회피의 관계: 내현적 자기에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22(2): 207-229.
- 곽윤영 · 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 그레고리 해밀턴(Hamilton, N. G.). 200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학지사.
- 김대희.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20대 성인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빈나 · 신서원 · 김창대. 2018. “타당화 개입이 부정적 평가 상황에서의 상태분노, 분노 억제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내현적 자기에 성향 집단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6): 19-36.
- 김소연. 2014. “행동억제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송아. 2008.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소정 · 윤혜영 · 권정혜. 2013.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 (K-SIAS)와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PS)의 단축형 타당화 연구.” 『인지행동치료』 13(3): 511-535.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51-64.
- 김은영. 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창대. 1997.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특성발달-체면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신치료학회지』 11(1): 65-81.
- 남기석 · 황성훈. 2020.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 불안의 관계에서 거절 민감성의 매개효과와 마음 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

제』 6(3): 207-227.

마은애.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박정하 · 민일식. 2013.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관광레저연구』 25(5): 323-343.

박혜빈. 2020.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박효정 · 박주희.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21-39

신희덕. 2007.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이경희 · 홍혜영.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4): 101-114.

이송이.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61-71.

이수련 · 하정희. 2021.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자기제시기대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3): 179-203.

이시형 · 신영철 · 오강섭. 1994. “사회공포증에 관한 10년간의 임상연구.” 『신경정신의학』 33(2): 305-312.

이은영 · 김은석 · 강미현 · 조휘야.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 정신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08): 145-145.

이정운 · 최정훈. 1996.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6(1): 583-598.

_____.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임상심리학저널』 16(2): 251-264.

이정은 · 서지원. 2021.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변화 추이 분석(2004-2019).”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5(3): 103-120.

정민. 2019.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인지왜곡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4): 101-115.

- 정재익 · 양난미 (2019).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기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7(2): 23-52.
- 정현희 · 정미정.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조용래 · 원호택. 1998.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3.”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8(1): 15-33.
- 조하나.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주혜원 · 배희분.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41-62.
- 차정은. 1996.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심리연구』 19-31.
- 최명진 · 김은정. 2018. “심리적 통제척도(PCS-YSR)의 타당성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서 · 행동장애연구』 34(2): 51-69.
- 최명희 · 김진숙. 2019. “대학생 사회불안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645-670.
- 최은경 · 임정하.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9(3): 101-127.
- 최인선 · 최한나.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14(5): 2815-2831.
- 최정아 · 이해은. 2008.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1): 295-326.
- 한수정 · 권석만. 2010.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성 민감성.”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9(4): 1135-1143.
- 한유리 · 박성옥.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2. 551-556.
- 허재홍. 2008. “사회불안 발생과정에 자기효능감과 체험회피가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73-1189.
- Akhtar, S., and J. A. Thompson.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39: 12-20.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and J. Schwab. 2012. *The Clark University poll of emerging adults: Thriving, struggling, and hopeful*.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 Bandur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rber, B.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
- Carleton, R. N., K. C. Collimore, G. J. G. Asmundson, R. E. McCabe, K. Rowa, and M. M. Antony. 2009. Refining and validating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Depression and Anxiety*. 26: 71-81.
- Eric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Hayes, A.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_____. 1984. *How Does Analysis Cure?*. ed. Arnold Goldber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uyckx, K., B. Soenens, M. Vansteenkiste, L. Goossens, and M. D. Berzonsky. 2007.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mensions of identity formatio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546-550.
- Mattick, R. P., and J. C. Clarke.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Wink, P. 1991. "Self-and object-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4): 769-791.

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efficacy

Wang, So-He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Sangmyung University)

Bae, Heeboon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nationwide, and a total of 390 were finally analyzed. First, the research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the relationship of all major variables. Second,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fathers and mothers mediates covert narcissism and increases social anxiety. Third,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fathers and mothers mediates self-efficacy and increases social anxiety. Fourth,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fathers and mothers directly affects social anxiety, but covert narcissism and self-efficacy are the main variables that mediate the path, and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fathers and mothers increases self-efficacy, increasing social anxiety. Finally, the import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ocial anxiety, covert narcissism, self-efficacy